

逸波學報

籌委會部刊品
高 校 生 育
記 導 生 育
速 學 習 費 0347
大 技 術 行 人 編 (週 非)
電 話 號 0347

寄 址 恩 索 街
故 址
金 尼 尼 右 在 於 下
(金 (Bascab))

百折不屈의 努力으로 提言 必勝을 期하라

생각과 단행, 수필은, 必勝을 期하라
생각과 단행, 수필은, 必勝을 期하라
생각과 단행, 수필은, 必勝을 期하라

그런데 我國 學生은 어
러한가? 民國 樹立以
來 半 邊 明 時 情 理
未 來 半 邊 明 時 情 理

이 時 節 華 僑 社 會 中
에 在 居 一 切 注 意 點
에 在 居 一 切 注 意 點

後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本 能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青年의 길

木 曾 有 的 民 族 履 歷
木 曾 有 的 民 族 履 歷
木 曾 有 的 民 族 履 歷

그런데 我國 學生은 어
러한가? 民國 樹立以
來 半 邊 明 時 情 理

이 時 節 華 僑 社 會 中
에 在 居 一 切 注 意 點
에 在 居 一 切 注 意 點

後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是 前

本 能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的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性 的 性 的 性 的 性

Handwritten signature or note in the top right corner.

소설의 길 (1)

保和

가시철없는 철기로
 7. 밤만 번이 며칠
 8. 으로 삼지 하리 초기
 9. 7. 지 이외의 어떤
 10. 8. 9. 도가 저 보지 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기미고한 事受이 야기
 하고 말았다 暫斷
 伊의 如之 固執 暫斷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사공의 다른 동정은
 하고 말았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불행으로 불행이
 가리키니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會員 王 (23)

문이란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大地 (24)

그런데 이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이런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逸波學報

大韓建國高等學校
 技術部
 發行 人 智育部
 編輯 人 智育部
 刊 行 部
 非 賣
 電話 0947

檄 創刊

副校長 徐商成
 情熱의主人이다
 血氣가 冲天에 오르
 고 奮氣 또한 어느 누구
 에 못지않다. 每事에
 힘이 넘쳐흐르고 不
 羈에 激憤할 줄 아는
 그대들만이 이 나라
 를 바로잡고 花樣된
 社會를 건설할 수 있
 음을 自負하라
 우리는 일찌기 培道
 民族의 血統을 지녔고
 花柳의 음습한 氣魄
 을 배웠다

◎ 今週의 標語

★ 協同精神을 發揮하자

앞날이 비록 險難
 하다 하더라도 勇敢
 히 싸워 이겨라 싸
 우다 쓰러지는 限이
 있다 하더라도 八顧
 九起 最後의 勝利를
 爭取하라 現吳에
 對한 妥協이란 弱者
 의 贊鳴이다 老我
 入의 羞恥이다 甘
 이 살어온 悔두리
 안에서 自己의 個
 性을 죽이며 盲從
 함은 차라리 挫折
 半이라도 自己는 一
 半 爭取하여 살어
 나가느니만 못하다

★

金言
 새 사람이 자면 반드시
 내스승이 될만한 사람이
 있나니 그 뜻은 하늘
 가 내려서 뜻을 지니라

앞날을 勇猛스럽게
 開拓하라 무언의
 든지 하면은 이루어
 어진다 보라
 그대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라 보라
 능숙한 모습이다
 壯한 態勢이다
 젊으니에게는 不
 可能이었다 그
 대들의 절어온 變
 자치는 永世에
 남을 것이요 尸文
 를 創造한다 寸
 步도 讓步치 말
 고 突進하라 그
 대들만이 來日의
 主人이요 새 나라
 의 主人翁이다

視聽片片

◇ 文明의 源泉
 은 意思를 表
 示할 수 있는 文
 字의 創案으
 로부터...라
 이것은 帝載以下
 의 말씀이고...
 ◇ 속시원하게 말하
 자면 質時代 簡
 素化時代 乃至 사
 자오임 時代에 단
 연 首席을 차지
 될 速記文化의 必
 要件에 必까지 着
 眼한 燈臺 學
 友들이 과연 無
 視 못할 存在라는
 것이 물시다
 예! 花蘭香盛하고
 滿花芳暢한 佳節
 에 自然을 벗하
 여 云云...하는
 公式的 詩句의 例

생림이 아니라 냇
 세상 밤세상 두
 루 시달리는 文
 化峰의 先驅者들
 은...
 ◇ 정말 自然에 忠
 주리던지 지난
 野遊會는 兼分數
 映의 百% 效果를
 내었다는 말씀이
 시다 모두 厚德한 선
 校長先生以下 여러
 先生의 德分임도
 ...
 ◇ 口味에 당기는
 것이 또 하나 있습
 죠. 다름아니라
 그래 벼락갑두
 라는 것하구 十七
 人의 포로단"이라
 는 것 그저 참 좋습
 다다 그저 재발
 더 두말구 한달에서
 더 번만이라도 어떤

〈生徒에게의 提言〉

張 蕙 樵

지난 三月二十五日 敎堂
은 應試者속에서 榮譽
의 資格을 하게 된 여러
분들을 맞이하고 敎
鞭을 잡은지도 벌써
敎鞭日째 저버립니다
當 初 定員보다 三名
이 超過된 六十三名의
入學生이 四月十一日 未
賓多數 參席裡에 入學
式을 奉行하고 翌十二
日부터 速記學을 비롯

〔主 義〕 青年과 創造

아는 것이 힘이다 盲目
的인 進取는 社會의 求權을
가져왔고 오늘날의 排他
依存도 實으로 이에서 固執
다 지난날의 못났던 모
습을 부끄러히 여겨 敢히
부러하지 않고 오히려 아
름나 있던 進取를 더듬기

하여 이에 附隨하는 一
般科目인 國語 法律
算術 新圖學等의 敎
業에 들어가 速記學
에 있어서는 一가
거고 一를 손에
이키도록 熱心히 冊
上에서 그러 보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 氣分
에 사로잡히면서 이
미 度字의 一行
과 助詞略記法을 習
得中에 있고 一般科
目에 있어서는 國語
및 經濟를 各一時同의

에 及하며 앞날을 果
敢히 進取할 勇氣도 勇
屈함에 挫折되어 精神
날이 갈수록 自己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남
들이 절여가는 階級속
에 沈몰려 左在 右在
하는 이때 超然히 우
리들 諸君은 學徒는 自我
의 位置를 覺醒하여 勇

受講하여 五月十日 現
在 總七十二時間을
勉學하였읍니다
이제 지난 敎鞭向
에 우리들이 절여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
면 前期인 第四期
生보다 十餘時間 앞
선 五十七時間만에
基本音字全部를
習得하였고 지난
臨時試驗結果에 依
하면 一分間 六十字
程度의 速記能力을
具有하게 되자 十餘名
(五團長을

五月 入學式 盛大 奉行

四月十二日 午前十一時
에 南權된 本校新入
生入學式은 本校 勸務
課長이시고 國會議記
課長이신 金震熙先
生任 百會로 內會되
어 式順에 따라 國
會事務總長이신 本
校校長 崔聖宇先
生任의 總司會하신 謝
若가 있은 다음 來
賓 祝辭에 있어서
國會議專門委員

날을 똑바로 내다 보아
야 한다
오늘날의 敎育은 時代精
神의 貧困과 迷妄에서
오는 不安을 克服할 수
있는 人向을 養成하는 데
더 큰 意義가 있다 그
저 살았으나 莫然히
生을 維持한다는가 또는
享樂하는 것이 人向의 本
질이나 本能대로 살어
보겠다는 하는 이러한 願
望은 死後의 第一 生을 辭
去하게 하지는 不구 할 것이
그 自身의 人格에 대한 큰
은 悔辱이다
우리는 슴의 眞實한 實情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 음지기면
나도 眞實한 實情이 眞實하다

이신 李宣敎氏의
努力과 勤勉으로
서 初志를 급히
지 말라"는 要旨
의 祝辭가 있은後
學生側을 代表하여
李春勳君의 宣稱
文朗讀이 있은 다음
式은 正午頃에 盛
大히 끝났었다

三 角 肉 係
참다 못해 花를 낸
남편이 戀敵에게
이게 내 마지막
정고다 이젠 마
누라 뒤를 표만
따러 다녀!
그래도 따라나
면 내 마누라를
너한테 떠맡기겠
다

笑話
三 角 肉 係
참다 못해 花를 낸
남편이 戀敵에게
이게 내 마지막
정고다 이젠 마
누라 뒤를 표만
따러 다녀!
그래도 따라나
면 내 마누라를
너한테 떠맡기겠
다

옆에서 본 速記

速記 課長 金震熙

俗談에 「書堂가 (狗) 三年에 風月을 읊는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쓰히는 境通는 흔히 남을 嘲弄하거나 嘲笑거리로 삼을 때에 많이 쓰히는 말이나 善意로 解釋한다면 같은 種類의 境通에 長時日 머물러 있으면 則 則 아무리 效能하고 微物인 存在 일지라도 조금은 얻는 뜻이 있다 면 뜻으로 될 것이다 速記技術人이 아닌 나도 偶然한 機會로 速記入과

자주 接觸을 할 수 있는 職場을 拂하 게 된 것이 因緣이 되 어 題目 그대로 十年가까운 時日을 費해서 速記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제법 速記에 對해서 아는 點하는 自身을 發見할 때에 前示한 俗談이 나의 腦裏를 스치게 되어 나의 所謂 堂狗式 速記의 所 對하여 苦笑을 兼할 수 없게 된다 編輯者의 要請으로 나의 「옆에서 본 速記」를 皮相的 觀察이나 現象하게 되었으니 여러 部分에 參考가 되는 뜻이 있 으면 甚幸이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速記가 그 業務를 相當할 수 있게 된 것이 八·一五 解放後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勿論 解放前에도 우리 速記術이 研究되었고 講習會 등에서 速記를 利用한 것은 事實 이기마는 速記術의 體系가 未備한 狀態에 있었 다 따라서 講習會의 速記를 한 다 하더라도 三·四人 이 速記를 하여 가지고 이것을 다지 續合하여 때 을 하여 내놓는 程度에서 現在의 速記能力 着라

자난 大일野 遊會를 光陵에 서 열었는데 몇 일 前부터 은 근히 注目한 것은 女丈夫 紅面靨의 奇蹟 熊勢인 지라 부라 부라 第一線을 占據한 幹部 將勇將들은 會員을 代表(?) 하여 其 洗鍊된 雄辯과 는 概念에 符合되는 速記入材의 出現은 期待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 외에 日帝의 毒한 朝鮮 毒林殺 政策을 우리 速記術의 殘廢의 素地를 余地없이 封鎖하였으니 우리 速記術은 가장 後進된 채로 解放을 맞이하게 되었다

별별 교대로서 野遊會 特別 參席 要請에 對하여 公私의 인 見地에서 要請(??)과 說得은 게을리 하지 않아 結局 滿日만에 그 貴重한 參席을 許諾받게 되어 一大 奇蹟에 觀者까지 는 驚效는데... 向題는 其를 日野遊會 當日 沃二兵에 解二兵에서 紅面靨가 外범을 세 정시간이 가와도 그 럼자 커녕 必새도 나 지않이 그날 會進行役 員들은 勿論 先韓인 紅二兵가 外범까지도 서리를 맞고 앞으로 總會 때 任 野遊會 信任 洗札를 받게 되었는데 原因은 職責不履行이라나 此를 洞悉했다 말안들어서나

수필

나와 五月

이른 봄 하늘도 어
 님 뜻 무거워지고
 色이 彌漫하든 꽃송
 이 香氣보다는 버려
 가 노래하는 옥이진
 綠陰이 그리웁다
 五月은 늦은 봄이
 다
 나는 五月에 山을
 찾아 구름 끝으로
 달고 먼 바다를 生寬
 한다
 푸른 바다는 선재
 든지 말없이 흐르듯
 만 무더운 여름보다
 차다 잔 겨울보다
 이 늦은 봄 五月에
 는 함한 靑年의 血
 脈같이 움직일 것이
 다

山.
 바닷길.
 바다 —
 그리고 나는 五月
 을 노래하며 함한
 靑年을 讚美로서
 裝飾한다
 나는 五月이면
 詩人모양 하나 —
 偉大한 藝術家모양
 山.
 바람.
 바다를 마음속에
 그려 본다
 五月은 나의 未
 遺한 벗이다
 푸른 잔디와 앞이
 속이진 山.
 구름을 물고 燦爛
 한 햇빛을 자랑
 하는 바람.
 기운 차게 凝凝히
 흐르는 바다.
 幸福 勇氣 그리고

希望 속에서 자라
 는 것은 靑年 五月
 이다
 나는 젊음 五月
 을 丸藏하며 幸
 福을 느낀다 未
 遺한 靑年의 生
 命에 氣象인 五
 月. 나는 바다
 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마음껏 마
 시며 勇氣와 希
 望 그리고 幸福
 에 未日을 찾아
 五月을 祝福하며
 나에게 求遺한 벗
 五月이 있기를
 바란다
 丙申 五月十一日
 姜仁奎 啓

短編連載小説
 女性愛

尹汝宰

심판전 설흔한
 살던 도국민 학교
 靑年은 교사인 김형
 달이란 자는 그의
 불중실한 아내를
 죽였다는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
 다 죽 그는 새살
 난 키여운 딸을
 잘 보살피지 못
 하였다는 유감을
 아내에게 품고 있
 었던 것이다 형달
 은 사형선고를
 받고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재생의
 순간을 찾으려
 끊임 없이 생각하
 는 것이었다 그리하
 여 그는 이 며

을 품고 새살난
 키여운 딸의 앞날
 에 보다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었다
 형달이는 서대문
 형무소 교수대에
 오르기 전 一주일
 을 앞두고 단지
 자기의 탐담 간
 수를 만나 보기를
 갈망하였다
 간수는 사형인의
 감방에서 갈이은
 수호인을 물러가
 게했다 형달이
 는 간수에게 열
 두권의 편지와
 이배장의 봉투를
 줄수 없느냐고 간
 단한 요구를 했다
 마침 형달이의 요
 구는 허락되었다
 그날부터 형달이

詩

마 음

祖國과

石像 熟重한 姿態를 刻안어 본다
바람이 스쳐가고 구름과 그리고...
차디찬 물가집이다

상상히 나무가지가 흔들리는 날
서린 마음을 애래운다

까마귀가 날려온다는 傳說이 깃들고
여윈 가슴에 잠자는 듯 맥이 떨리면

어두움이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굳은 그루의 体温를

느끼는 것이다
흐느껴 울고 싶은 마음이다

李 薰 詩

(二面에서 계속)
이 앓았음을 看取
하게 되었읍니다
다음에 出册率에
있어서는 前期에比
해 若干의 好報을보
아 十日現在 〇.三
%의 落伍率을 示
顯하고 있습니다

以上の 두가지 뜻에
서 볼때 習學進度
나 出册率에 있어서
는 前期보다 若干
何上되었다고 볼수
있으나 習學者들의
體得 活用率은 適
히 講場할만한 程
度의 成績을 올리

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勿論 習學進
度가 取耳에 比
해 若干 變遷기
때문이라는 辯道
있겠으나 이는
오죽 習學者들
自身의 練習不足
에서 오는 成績
不振이라고 볼수
있읍니다
따라서 五期生
의 優秀性과 後
輩에의 傳統을
誇示하기爲해서는
學生各層가 加一
層의 奮發과 誠
意있는 努力을 速
記學習得에 傾注
하여주어야만 될것
입니다

이 는 감방구석에
배치된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 밤
늦을 계속하여
무엇인지를 썼다
X X X
형달이가 교수대
에 오르기 바로
하루전날에 마지
막으로 간수를
만나갈 요구했다
감방구석 책상위
에 이백장의 편
기 무테기가 높다
랑게 향여했다
여보십시오. 제
가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부탁을
하리합니다 간수
인 민병구에게
정중히 말했다
형달은 다시 계
속하여 이 세상 사
람들은 우리들사

이의 비밀은 알
지 못할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
한것도 아니며 그
렇다고 어떤 증거
가 남는것도 아
닙니다 당신은
저의 부탁을 거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요
구를 패히 승락
하여 주신다면
저는 죽어서도
행복하게 죽을것
입니다
간수인 병구는 자
기 될수있는데까지
형달을위하여 도
아줄것을 약속하
였다
계제는 세살나
어린달아가 있
읍니다
(계속)

<p>人自愛의 交又를 被此會員의 仁性 및 이를 通한 親善은 것입니다 아올라 使命을 다할수있을 만 이 設尙楠의 稱하여 주삼으로서 한분도 빠짐없이 設 設尙楠의 交又를 稱하여 주삼으로서 한분도 빠짐없이 設</p>	<p>設 問 楠</p> <p>一 入學後 特別 印象은? 二 本校 卒業後의 希望은 三 좋아한 TYPE 의 女性(男性) 四 當신의 結婚觀은? 五 相互 親睦을 도모할수있는 方案</p> <p>設尙趣音</p> <p>따마하고자 루함을 設尙 수있는 設尙 楠을 設置하 였읍니다 會 員되지는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設</p>	<p>一 入學後 特別 印象은? 二 本校 卒業後의 希望은 三 좋아한 TYPE 의 女性(男性) 四 當신의 結婚觀은? 五 相互 親睦을 도모할수있는 方案</p>
<p>妻多夫는 아예없어 지오 그러나 一 多妻도 無妨하겠 다</p> <p>一 次入學해서 是 방 速記士나 된듯 매우 자랑스러웠 지요 그러나 夫 상 배우고보니... 二 于先바라는것은 會速記士가 되었 으면 하는것입니 다</p> <p>三 소박하게보이는 독일 女性보다는 날씬한여리를가 지고있는 볼란서 의 「과리」 女性이 면 좋지않을까요? 四 一夫一妻제가 가장 正當的이나 許諾된다면 一夫 多妻도 無妨하겠 지오 그러나 一 妻多夫는 아예없어</p>	<p>一 次入學해서 是 방 速記士나 된듯 매우 자랑스러웠 지요 그러나 夫 상 배우고보니... 二 于先바라는것은 會速記士가 되었 으면 하는것입니 다</p> <p>三 소박하게보이는 독일 女性보다는 날씬한여리를가 지고있는 볼란서 의 「과리」 女性이 면 좋지않을까요? 四 一夫一妻제가 가장 正當的이나 許諾된다면 一夫 多妻도 無妨하겠 지오 그러나 一 妻多夫는 아예없어</p>	<p>一 次入學해서 是 방 速記士나 된듯 매우 자랑스러웠 지요 그러나 夫 상 배우고보니... 二 于先바라는것은 會速記士가 되었 으면 하는것입니 다</p> <p>三 소박하게보이는 독일 女性보다는 날씬한여리를가 지고있는 볼란서 의 「과리」 女性이 면 좋지않을까요? 四 一夫一妻제가 가장 正當的이나 許諾된다면 一夫 多妻도 無妨하겠 지오 그러나 一 妻多夫는 아예없어</p>
<p>國會議消息</p> <p>金鎭基 今年二月二十日 에 開會된 第二十 二回定期國會는 憲法第九十一條에</p>	<p>一 林亨 主 速記先生任을 의 體格 二 大政 治家 三 使 康을 前提로 한 新인 案 TYPE 四 理智的인 結婚 五 酒 席</p>	<p>一 林亨 主 速記先生任을 의 體格 二 大政 治家 三 使 康을 前提로 한 新인 案 TYPE 四 理智的인 結婚 五 酒 席</p>
<p>一 會 議 長 與 帝 任 命 議 案 二 國 會議 議 程 有 關 憲 法 條 文 之 提 議 三 憲 法 條 文 之 提 議 四 憲 法 條 文 之 提 議</p>	<p>一 會 議 長 與 帝 任 命 議 案 二 國 會議 議 程 有 關 憲 法 條 文 之 提 議 三 憲 法 條 文 之 提 議 四 憲 法 條 文 之 提 議</p>	<p>一 會 議 長 與 帝 任 命 議 案 二 國 會議 議 程 有 關 憲 法 條 文 之 提 議 三 憲 法 條 文 之 提 議 四 憲 法 條 文 之 提 議</p>
<p>一 會 議 長 與 帝 任 命 議 案 二 國 會議 議 程 有 關 憲 法 條 文 之 提 議 三 憲 法 條 文 之 提 議 四 憲 法 條 文 之 提 議</p>	<p>一 會 議 長 與 帝 任 命 議 案 二 國 會議 議 程 有 關 憲 法 條 文 之 提 議 三 憲 法 條 文 之 提 議 四 憲 法 條 文 之 提 議</p>	<p>一 會 議 長 與 帝 任 命 議 案 二 國 會議 議 程 有 關 憲 法 條 文 之 提 議 三 憲 法 條 文 之 提 議 四 憲 法 條 文 之 提 議</p>



講座 民法의 構造

國民의 生活에 關係하는 公法 職務을 行하는 官으로서 國家의 政治와 關係를 가지는 生活과 關係를 가지는 物을 耕作한다든가 田

官生活三年이 前 前職에 現 任 官의 社會的인 經 理 官으로서 無 關係할 수 없는 바로서 警察 官 官生活三年이 前 前職에 現

會員프로필 金容煥(三八才)

오랫동안 남에게 嫌惡을 주지 않고 善은 即處에 又한 善은 人向으로서의 待遇를 받을 수 있는 外形 그의 男子로서의 姿容은 아 마도 부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 한다

在道 某機關에 在職中인 모양... 그의 善은 善은 即處에 又한 善은 人向으로서의 待遇를 받을 수 있는 外形 그의 男子로서의 姿容은 아 마도 부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 한다

件을 處置하고 金主 貸借한다든가 他人의 權利를 賠償 하고 婚姻을 하고 또 는 相続한다는 것 과 같이 直接 國家의 政治와는 關係가 없는 國民相互 間의 生活關係가 있다

前者的인 生活 關係인 國民法와 後者의 生活은 私法關係이며 是은 私法이다 民法은 이 私法의 根本法이다

의 關係를 規定하는 債權法으로 나 누리지며 또 身分法은 身分關係를 規定하는 親族法과 身分關係에 基한 財産의 移動을 規定하는 相続法으로 나누어진 다

閑談

요즈음에서 市民들이 日曜日에는 高麗 藥材나와 昌慶苑 外로 出아 저나오는 수 가 버쩍 늘어가는 듯 그야 高麗藥材에 보리밭 이라도 싸들고 한껏 喜 樂하며 더불어 벗이 되어 보는 것도 좋을 듯 하기도 하다

學生會創立

지난 四月二十八日 第五期學生會創立總會 閣催되었는데 臨時議長에 李君 薰君을 選出하고 會順서에 따라 準備委員會에서 草案 作成한 會則(三章 三節 二十條 附則)을 無修正 通過시키고 會長 선거에 있어서 倍數 公選제를 設하여 候補에 李君 薰 崔衛重君이 추천되어 無記名 投票結果 李君 薰君이 從多數 票로서 選出되고 同方法으로 副會長은 선거 하였는데 역시 會長에서 若選한 崔衛重君이 任順 宰君과 得東同數

가 되어 二次 票決에 들어가 崔衛重君이 副會長으로 當選되었다. 그리고 남이 자 各部 長 選출은

詩 速記

가 밤아 쓰세요
가 구
기 계
개 나리
오 무라이스
(基本文字의 模倣)
음 천히 불러주세요

◇악송

「學生會 閣下」
모든 分野에 罷業을 宣言했습니다
— 女性 同志會 —
投稿期間 每週水曜日까지 智育部

律

길고 짜르고 標準이 서지 않는 도깨비들
그러나
몇번이고 몇번이고
수많은 時空을 삼키면
年輪과 더불어 生命을 가지다
五月七日 全致坤

◎投稿募集

詩 隨筆 콩트 笑話
政事記 小說等 會員 여러분이 寄입하신 投稿을 환영합니다
投稿期間 每週水曜日까지 智育部

會長이 指名한 會員이 定期總會에 會員의 認准을 要하게 되어 있어 지난 第一回 定期總會에 會長

李君 薰君을 會로 閣催되었는데 會長이 指名한 各部 長 候補는 過半數의 絕對多數로 認准되어 選출되었는데 그名單은 다음과 같다

- 會長 李君 薰
- 副會長 崔衛重
- 總務部長 任順宰
- 庶務部長 全致坤
- 智育部長 洪淳佑

編輯後記

「逐波學報」創刊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逐波式 速記學校 五期生으로서의 自與外 矜持를 表現할 수 있고 아울러 傳統을 裝飾할 수 있는 大運의 週刊紙로서 出產하였습니다. 萬難을 克服하고 創刊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眞摯히 學校生活를 그리고 先輩諸君의 功勳을 心而面의 聲譽를 熟知하며 나리 不痛의 担게 하시며 불변의 擔負를 承繼할 것입니다. 「逐波學報」의 創刊호는 全體의 勇氣를 發揚하며 내놓게 되었습니다. 編輯者 全致坤

逸波學報

大韓 總發行 人 智育 部 刊 紙 品
 社 址 濟 州 道 南 浦 市 廣 安 街 二 號
 電 話 二 〇 〇 四 七
 金 刊 三 日 一 兩 錢

後輩에게의 忠告

黃圭鎭

忍師라든지 로오마
 는 하로 아첨에
 이루어진 것이 아
 니다라는 말을 책
 상머리에 너무 많
 이 써 두었기 때
 문에 이런 그릇을

主 選舉와 良心

祖國을 光復하지 於焉
 十餘星霜이 지나왔다. 民
 族正氣는 沖天에 휘날
 리고 관마음 한 뜻으로
 南北統一을 渴望하는
 이때 우리 조으로 세번째
 正副統領을 뽑게 됨은
 實로 새로운 意義가 있다
 라겠다. 尙 民族의 振興

보드라도 無感覺의
 狀態에까지 이르세
 되었다. 그러나 일
 단 速記術을 習得
 하겠다고 마음 먹
 고 발을 드러 놓
 은 사람이면 本來
 의 意味에 있어서
 의 참고 선단다는

南北統一을 完遂하고
 들깨 戰亂으로 荒廢化한
 疆土를 바로 速히 回復하
 고 싶애 이 나라의 民主
 的인 구치를 招來해야 할
 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의 國民의 良心을
 正副統領을 選出해야
 한다. 누가 가장 우리 조

이것을 實行하지
 않고서는 到底히
 速記術을 習得할 수
 가 없는 것이다. 速
 記術의 社會的 地
 位云云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速
 記라는 것이 技術이
 라는 것을 모르고

速히 熟考하여 最良의
 結論을 내려야 할 것이다
 政權에 野慾을 품조거나
 私利에 눈이 어두어 權
 的인 曖昧한 態度를 取
 하는 機會主義者나 中間
 派는 故는가? 이 機會

하는 말이다. 速記
 士란 技術者인 것
 이다. 그러기 때문
 에 이 技術을 完
 全히 自己 것으로
 만들기 爲해서는
 慇懃과 困難의 고
 비를 뚫어내고 艱
 여야 한다. 배운 지
 三四個月이 지나면
 一週일에 한자程度
 는가 말라 하는
 慇懃期가 와 이때

자 못하는 사람이 나라
 를 爲하여 일할 수 있
 을 것인가? 이제 民意를
 公正하게 發動되여 方民
 士에 嚴肅한 審判을 받
 시 될 것이다. 바라신대
 高貴한 指導者들이여
 國民은 무엇을 바라고 있
 는가 똑똑히 알아서 그

啓伍者가 選出한다
 는 것을 準備할
 覺悟와 準備을 必
 要가 있는 것이
 다. 이 고비를 넘
 어 놓으면 마치
 峻嶺을 넘고 險山
 을 征服한 後의
 快感을 맛보게 되
 는 것이다. 習得期의
 苦役이 큰 代身
 習得後의 速記의

有効性이란 말할
 수 없는 程度로
 多方面에 利用하세
 된다. 이때 남이
 노름으로 虛費하는
 時間을 有効適切히
 利用하여 何處 何
 時에 나의 生活式
 爲로서 利用할 수
 있는 技術을 習得
 하였구나 하는 滿足感
 이 四面 環繞

國會機構紹介

一部國家를 除外한 大部의 世界各國에 있어서는 그러하듯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國會라 함은 憲法第三章에서 規定한 國家의 立法機關으로서의 議院과 參議院을 합쳐 通稱해서 一般적으로 國會라 일컫고 있는 것이나

國會法第十六條에 의하면 議院院構成은 보지못하고 있는關係로 議院의 國會라 看做되고 있다. 二百三명의 選任으로서 構成된 議院에는 먼저 諸案件의 予備的인 議院機關의 十四個의 常任分科委員會와 特別한 案件의 予備審議委員會가 있다.

國會法第十六條에 의하면 國會를 構成하는 各部門은 司法, 內務, 外務, 國稅, 子算決算, 財政經濟, 社會保健, 交通通信, 懲戒資給, 國會運營의 各部門으로 나누어져 있다. 選任으로서 諸部門에 各은 十五名乃至 三十五名이 參與하여

各分科委員會를 構成하고 있다. 兼하여 全體委員會는 二百三名全體委員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議長과 議長의 代理權을 有할 때에 隨時로 말하고는 副議長二人은 本會議에서 選出하게 되어 있다. 議長은 各分科委員會에서 予備審議한 各案件을 最終적으로 審議

議決한 本會議의 議案을 말하게 될뿐 아니라 二百三選任들의 事務的인 面을 도맡고 있는 事務處를 指揮監督하게 되어 있다.

事務處를 管轄掌理하고 있는 事務總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任命한 國會의 承總을 일게 되어 있다.

總長이 掌理하고 있는 事務處에 現在 約三百五十餘名の 勞務職員을 두고 있으나 이는 아직 不滿한 事務進行을 爲해서는 不足한 數字로 되어 있는 것이다. 其中 一例로서 우리 速記士數를 보더라도 必要人員 約二百名에 불과하여 現在 不過三十餘名으로서 말서진바

今週의 標語 忍耐力로서 倦怠를 克服하자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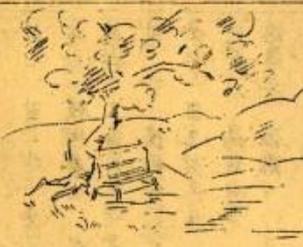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되었다. 學校當局의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其中에서도 功를 大會 및 보물찾기 行事는 例년에 없었던 娛樂로 있었었고 先輩인 紅二兄이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

光陵에서 親睦會 盛大히 舉行되었다. 學校當局의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其中에서도 功를 大會 및 보물찾기 行事는 例년에 없었던 娛樂로 있었었고 先輩인 紅二兄이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特別한 厚意로 國會에 出席한 諸君의 參與한 功勞를 爲하여



연예서본

速記

(二)

解放과 더불어
 術을 養成 發展 시
 術을 實用的 水準
 까지 올리는 任
 務는 當時의 速記
 人에 賦課된 至上
 命令이었다. 이 任
 務의 遂行은 오로
 지 五 六人에 不遇
 한 速記人의 自寬
 限 期待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解放直後
 로 말하면 아직
 우리말 自体가 日
 帝의 抑壓政策의
 死境에서 산신키
 蘇生되어 우리말을
 하는데 尙한 存心
 없고 餘念이 없었던

時期에서 速記術
 에 대한 社會的認識
 이 稀薄함을 본단
 아니라 速記需要에
 대한 必要性이 社
 會文化面에 아직
 深刻하게 느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文
 化施策으로서의 速
 記術의 保護育成
 策이 等閑視되었던
 事實을 考慮할 때의
 革新期의 自覺한
 速記人의 情熱적인
 開拓精神만이 우리
 나라 速記術의 骨格
 을 이룰수 있고 그
 위에 살과피를 붙
 일수있는 唯一한
 活藥劑가 될수 있는
 外담이다. 이것은
 個人의 利害打算을
 超越한 技術者로서
 의 矜持와 先見과

公共心과 努力을
 土대로한 活動이기
 때문에 崇高하고 價
 值있는 事業이 되었으
 리며 苦勞를 自進阻當하
 지 못 與분의 功
 勞에 對하여는 先見
 人으로서의 尊敬과 工
 勞에 대한 感謝의 뜻
 을 最大限으로 表現
 아나 할수가 없다
 이었던 이時期의 速
 記術은 社會와는 아
 주 乖離된 狀態에 놓
 여 있었고 오직 안일
 의 希冀을 바라보며 이
 들 速記先覺人의 努力
 에 依하여 速記術의
 目立의 基礎工事が
 着々 準備되어가는 時
 期이었다. 이러한 不
 遇한 環境속에서 各々
 體派別이 아닌 速記術의
 工費用의 要請을 받

視聽片片

理想과 抱負에
 充溢한 速記
 校門을 두드리지
 도어 번 月餘
 에.....
 잘 쓰지는 못하
 요마는 가, 서, 고, 하
 면서 이편지 잡고대 받
 습니다.
 ◊ 발, 그것이 成長의 証
 據라요 그리고 그맛이
 랍니다. 하지만, 戌
 馬加鞭이란 말도 戌
 馬에서는 望되는 줄
 알아야요
 ◊ 때로는 寸상을 제 무
 기인 時期는 比較的
 빨리 到達했다.
 그것은 南朝鮮 過度立
 法議院의 誕生하키
 됨으로 말미암아 解
 校後 처음으로 速記

될 程度의 倦怠도 없
 지 않아 있으나 教室
 에 발성을 처음 들었을
 때 첫눈을 자극하던 忍
 耐努力의 座右銘이 記
 憶을 새롭게 합니다.
 ◊ 우리의 지금도 不完全
 에서 살고있고 變란 아
 니라 速記界에서도
 不完全성이 5%를 차
 지하고...云云 하시는
 脚生님의 말씀은 듣고
 보니.....
 ◊ 速記를 배워보려는 意
 欲外에도 忍耐는 勿論
 融通성이 尙대 要求됨을
 느낍니다. 암, 우리
 사람도 普通인인 忍耐 들을
 들을 살아야요.....
 의 實需要件가 나나
 나게 되었고 여기에
 서 路傍의 돌과도
 같이 깎이 버렸던 存
 在인 速記術은 비로소
 時代の 脚光을 받게 되었다
 (次号 繼續)

讀書의 바깥

朴保和

책은 三稷도 한참 읽어서였다.
책과 막 등글리서 머리카락이 엉키고 또 엉켜서 바스락 바스락 달달러나갔다. 왜 그런지 책과 책을 풀하는 자음에선 韻歌를 부르고 싶었기에 아무 理由도 없이 睡魔하고 작구만 자우고 싶었다. 이젠 도둑질 지키기로 이름표는 개도 마구 쓰러져 버렸다. 도무지 인기척이 있을래야 없었다. 다만 다 붙여서는 섬은 울리의 밑에선 밤의 行進曲이 들릴뿐이다. 그리고 모든 萬物은 저 하늘 높이 떠있는 맑은 鏡境속에 고히 담겨 있는 것만 살아보

있고 아따금씩 붙어오는 시원한 바람은 머리속을 씻어주는 듯 시원했다. 그래서 나는 窓門을 활짝 열어젖혔다. 이제는 시원한 바람이 한다발씩이나 뭉쳐들어왔다. 이럴수록 내 눈동자는 더욱더 부엉이눈에 가까워만 가고 있음을 느끼곤 했다. 밤은 정녕 밝은 것이었다.

어디선가 둔탁하게 淸快소리 네번이 들려왔다. 淸快發聲의 鐘소리가 묵중한 大氣를 따라 은은히 들려오기에 나는 淸快소리를 듣고 그 鐘소리에 陶醉나 된 듯이 「베르벤」의 月光曲을 鑑賞하였다.

時間은 흘렀다. 또 아까와 똑같은 鐘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멜로디」는 아니었다. 다만 나를 冥想에서 깨어준 귀마은 鐘소리였다.

尹汝暻

오지 않는 가리는 의아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면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동차 사고나 다른 불변한 사고로 죽었다고 할버서겨 알려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은 좌우로 버리를 흔들었다. 저는 그 아이를 잘 돌보려고 합니다. 이런 아이는 친아버지의 절대적인 보기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는 제가 말하는 데로 한순 주의할 것입니다. 그 아이가 크면 그때는 제가 저승에 있으니까 제가 교수대의 이슬이 된 것을 보낼 것입니다. 반일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 아이의 장애는 꼭 위할래질 것입니다. 저기 써놓은 편지는

(一) 一面 계속
을 혼자 지켜 보게 된다.
速記관 필요하로 이를
에 獲得되는 것이 아니라
드러머기에 忍耐가 必
要하며 程度의 長短에 巨
小에서 바로 나눌 수
있을 程度의 長短에 巨
小 練習이 必要한 것
이다. 먼저 배운 사
람으로서 할 수 있
는 밑로서는 오직 練習
하며 끝까지 練習하는
習慣을 기르라는 말
뿐이다.
(二) 葉素生 國會議員

<p>二、韓國唯一의 速記士 가 되어 參議院의</p>	<p>一、地獄死後地에나 어온듯 부시부시한 用發을 주었으며 速 記가 어렵다는 말이 남모름 公포를 느 쳤다.</p>	<p>槓 問 設</p> <p>一、있음이다 二、그것 卒業後의 運命에바칠사다 三、있습나다 四、되는대로 五、尤點을 지키면 親睦하게되겠지요</p>
<p>가 前인 지난世代의</p>	<p>崔錫槓 一、地獄死後地에나 어온듯 부시부시한 用發을 주었으며 速 記가 어렵다는 말이 남모름 公포를 느 쳤다.</p>	<p>鄭昌時五 一、있음이다 二、그것 卒業後의 運命에바칠사다 三、있습나다 四、되는대로 五、尤點을 지키면 親睦하게되겠지요</p>
<p>응키 일어나서 마치</p>	<p>會員 무로필 崔貞惠 (무로) 一、地獄死後地에나 어온듯 부시부시한 用發을 주었으며 速 記가 어렵다는 말이 남모름 公포를 느 쳤다.</p>	<p>速記士 가 되었다 三、旧式도 아니고 新式 도 아닌 中國派의 머지큰한 女性 四、中幸以上의 女子로 사 恩惠이 堅固하고 人物이 貞潔한 大韓民 國의 女子 五、每週一人一英式 模 範으로서 相互人 性을 理解하여주는 데서... 되겠지요</p>
<p>어떤 良心하는듯 조 어떤지 보르게 知性</p>	<p>女人들에게서 感受한 제스우어가 아난카 그러면 미소狀은 衆 그런면 洋釣인美를 多分 지니고있다고 아나할 만 安城맞춤이다 그렇 속心算이야 보르지 만 同德女高를 卒 業하고 現在某大學校 에 在學中인 洪양은</p>	<p>三、純眞한 美가면서 決活 한 女性 四、나 의 理想에 符合되 면 人間世界의 1파라다 다이스고본다 五、相互向의 意恩을 交換 하면 自然히 親睦이 발상한다.</p>
<p>만이 되지안을까?</p>	<p>나 完全한 何物다 하더라도 全體가 存치 體는 無何值한 存在 로 判에 안되는 것이다 우리는 全體를 全善으로 로 해서 善仁體를 發을 수 있다는 理想에서 인 智學을 發하고 必 가 하는 事 然한 聖命 의 能인 우리 國家를 生 각하자 우리 全國民의 幸 福을 爲해서 만이 나의 生의 價値와 나의 幸福福이</p>	<p>三、純眞한 美가면서 決活 한 女性 四、나 의 理想에 符合되 면 人間世界의 1파라다 다이스고본다 五、相互向의 意恩을 交換 하면 自然히 親睦이 발상한다.</p>

逸波學報

總發行所 延慶會館
 編輯 延慶會館
 印刷 延慶會館
 電話 0347
 金 (英國借款)

言 言 言
 言 言 言
 言 言 言
 言 言 言

後輩에게의 忠告
 每日 先生 先生 先生
 熱心 忍耐 努力 持
 心 增進 以下의 말이나
 亦是 尤難 事 事 事
 亦是 亦是 亦是 亦是

善惡의 眞理 眞理 眞理
 善惡의 眞理 眞理 眞理
 善惡의 眞理 眞理 眞理
 善惡의 眞理 眞理 眞理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眞理가 아니고 眞理가

(主) 協助精神을
 (說) 發揮하자
 悠久한 史와 史나 史
 史는 自古로 東方 東方
 史는 自古로 東方 東方
 史는 自古로 東方 東方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民族의 精神의 統一 統一

(六) 에 계속 ()

本校卒業生動態

金領基

本校가 禮山에 284年土
 月二日 臨時 首席 釜山에
 教育法에 依據한 法律
 技術學校로서 發足할 當時
 의 우리나라 總記士로 不
 足十數名의 總記士로 任
 命되던 中 維持되던
 現狀이었다. 八二五 總務
 課 今週의 不要의 辭讓 보다 進取性으로 서
 標 語 每事에 臨한 자

來 비로소 本校에 오르
 기 給作한던 우리나라의
 總記士 文化도 六二五 山은

民衆의 受難을 같이 겪어
 아나치 못하였으나 總務
 에서 舍心함이 破壤되어
 總記士 善政機關은 殆無하
 였던 것이다. 上리하의 民主
 政治의 實인 總務의 生々
 然 記錄을 整理해야 할
 總記士의 不足은 勿論이었
 으나 其他 總記士 必
 要로 하는 國家 機關 諸
 文化機關의 總記士不足은
 尤로한 行難은 總務하여
 時代的인 要請이 切實하
 였을 때에 不柯하고 우리
 나 總務課는 그 任務
 을 擔當할 수 있는 能力이
 缺如가 때문에 總記士의
 善政事業이 一刹의 權限
 만이 火急히 成就하여

야 할 情勢下에 놓여져
 있을 때 總務課는 格別한 理解
 와 好意를 받야 本校의 發
 展을 보게 되었을 때 文
 化의 一翼을 擔當하게 되
 는 總務課의 飛躍적인 發展
 을 約束된 空氣 아래고
 아니 할 수 없다
 總務 總務은 총리 본
 校는 四백에 達하여 百二

男子會中에서 四名을
 選出하고 女子側으로
 부러 一人을 選出하거
 는 決議하여 選出方法
 으로서 男子側은 推選
 制이며 女子側에
 附決案 法이 用되거
 다는 四名이 選出되거
 고 女子側은 敎務課에
 依頼하기로 하고 下午八



第一次

臨時總會로써

召開하여 崔 副會長의
 司會로 開會하였다
 所議案件 인 總務課
 敎 編輯 委員 擔任에
 차하여 提案者인 崔 副會
 長의 主旨 說明을 하게
 고 全體的인 討論에
 들어가 신랄한 質疑 理
 論 反駁으로서 진지하고
 妥當한 討論 끝에

選三十分에 可會하였다.
 男子 委員 金 未 浩
 尹 汝 宰
 申 根 植
 女子 委員 丁 明 淑

名 單
 男子 委員 金 未 浩
 尹 汝 宰
 申 根 植
 女子 委員 丁 明 淑

名이라는 卒業生을 社會
 에 進出시키고 今年 是
 第五回 新入生을 次
 기 開한다.
 × × ×
 이제 本校卒業生의 功
 能을 紹介하기 前에 必
 ず 數行하고자 하되
 總記士 一伯의 技術
 이기 때문에 그 技術은
 本校를 發展시키기 위한
 手段으로서 直接 利用할
 수도 있으며 直接 利用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까닭에 本校에
 總記士를 充實한 사람이
 필요하다. 全體가 다
 總務事務에 當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其中에 總
 務을 直接 生業科로서
 利用하고 있는 사람이 있
 거나 間接적으로 日
 本의 理想을 追求하기 위한
 學業科로서 總務科 使用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完)

隨想
容雜想
* 病 *
* 竹林亭主 *

뜻답고 향락은 보를
누린것이다. 오직 이런
을 때로고는 모두 온
정할 무서운 부림이다
이렇게 인생의 한가
함을 잊어 버리는 나
나 스스로 멍멍
소리로 아들의 피로
도 잊어서 無常한 愁
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또 掉殘한 주의를
을 잃겠 되며 이불
을 덮고 부끄러웠다
사립보자. 라는 決心
을 -
黃金의 奴隸가 되고
板屋에 拘束이 되어
現實의 人間은 오직
不義의 가지 가지 모

수상함을 보며 주고 있지
아니 하나? 왜 이
리로 가는 良心의 明
期이 없나지고 虛無 精
神 娼妓 等々の 不義
이 魔의 두 손을 저게
잡는다?
나는 이때 阿蘭야 市
民이며 諸君은 偉大한
그리고 聰明한 (아래에)
市民이다. 諸君은 大金
銀과 名譽에인 마음을
쓰고 知識과 直理와 그
리고 精神 發達에는 조
금도 奴力力이 아니
라느냐? 여 5000
pes 가 壽益을 줄
고 내일인 柳子원가 財
想된다. 아! 이 일
이나 좀내 들기는 거로한
人類를 醜한 大慈悲의 母
이 일이나 슬프고 배
아픈 일인가? 왜 그리
도 良心을 가진 사람이

없다면 알아야 그러나
그의 肉體는 二千五磅
무릎에 이거 죽어서
一墳土에 묻혀 버리다
도 그의 精神이 들리
은 眞理와 영혼의
기리 빛날 것이다. 그
리하여 모든 良心을
喪失한 可憐한 娼妓에
세 가지 안고 眞理의
광된 생을 위하여
犧牲한 것이다
壁上에 阿蘭야 市
民의 眞理와 直理와 그
리고 精神 發達에는 조
금도 奴力力이 아니
라느냐? 여 5000
pes 가 壽益을 줄
고 내일인 柳子원가 財
想된다. 아! 이 일
이나 좀내 들기는 거로한
人類를 醜한 大慈悲의 母
이 일이나 슬프고 배
아픈 일인가? 왜 그리
도 良心을 가진 사람이

父愛
* *
尹汝宰

前編에서 계속) 때는
一九二五年 三월
그들이었다. 간수인 兎
구는 사형의 刑罰과
의 약속을 아무에게
도 알리지 아니했다.
딸이 지나 새벽의
때만. 편지는 초콜
러 兎의 어린 딸에
게 날아 갔다.
심심한 후에 兎는
심상범으로 간수의 직
을 떠났다. 그때는
자기의 아내와 딸이
숙이에게 야기가 들
었다. 그후 유개월이
지나 兎는 범으로
주었다. 兎의 兎는
지 두달 후에 아내
죽게 되었다. 그러나

간수 兎의 딸이 兎
이는 아버지의 말대로
매달 매달 초콜러 아버
대신 편지를 보냈다.
이런 兎에 兎의
는 兎의 딸로 부러
두번이나 兎의 兎
三神穴과 兎로 유망한
재주를 구경하지 않
세요. 라는 兎의 편
지를 받았다. 그때만
아버지는 절로해서 지
어머니 혼자 계시며 아
버지는 바다가 나가 계
신다고 희망해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허상
무력으로 해서 이따금
외국으로 멀리 가 있는
꼴로 말게 되었다.
사년 후인 어느날
兎의 딸은 兎의 딸
데로 아버지가 아프다는
마지막 편지를 보냈다.
(次編에 계속)

꽃치(完)

次, 오호 집이 있어
 男子로서 스물은 못
 막아도 病弱을 받을
 다고 하지만 度를 지
 나치며 넘어 地球가
 自轉하는 것이 도에 보
 일 정도로 된 좁치
 치 근한 사람의 體內
 에 있던 은 몸에서
 풀기엔 必는 양조장
 이 아니면 拔을 수 없
 는 藥을 補하기는
 라지만 더구나 기분
 좋은 藥에 藥집 藥석
 을 그대로 藥장시킨듯
 藥이 되건 안 되건간
 에 마구 藥의 毒이니
 옆에 앉기 있는 사람
 주사 毒이니 자기도
 이니듯 지구가 도는것

이 화살의 보인것
 만 藥이 된단 판
 가 藥의 일
 스승의 도미준이란
 는 소경 이것은 가를
 풀다듯 하는 일인데 그
 대노라면 藥의 기미하면
 藥을 藥이라 시발사람이
 藥을 藥이라 시발사람이
 藥을 藥이라 시발사람이
 藥을 藥이라 시발사람이

조흔의 藥의 藥의 藥의
 이니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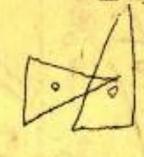
날기
 * * *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화로 나 화로 나 화로 나
 로는 그이 화로 나 바
 꺾는 藥에 藥의 藥의
 풀고... 바람과 함께
 살아간 거고요...
 파갈이 죽어 버린 거고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藥의

